

# 주간 무역리뷰

2007. 9. 10, No. 279

## Trade Focus

- Focus 1 : 2006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
- Focus 2 : 우리나라 대미 수출 중 기업내 수출 추이
- Focus 3 : 한-EFTA FTA 1년 - 자동차, 공작기계 수출 호조
- Focus 4 : 원-달러환율, 이번 주 938.0원으로 마감

## 세계 경제·동북아 Briefs

- 친(親)이슬람 대통령과 터키경제

## FTA News

- 캐나다·멕시코·미국, DDA협상에 대한 책임 재확인

## Market Watch

-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해 주는 리액터
- Jerry Lamp, 깨지지 않는 실리콘 램프

## 주간 주요 경제지표



**K I T A**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

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01호

Tel: 6000-5174~9 Fax: 6000-6198

홈페이지 : <http://iit.kita.net>

## Focus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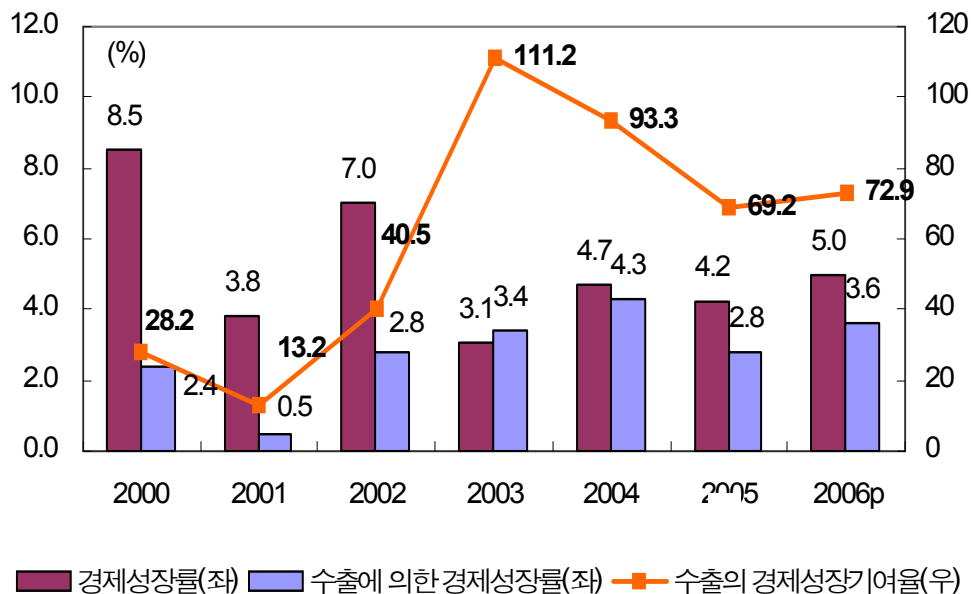
## 2006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

## □ 2006년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72.9%

- '06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산업연관 분석(Input-Output Analysis)을 이용 분석한 결과,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72.9%에 달한 것으로 추정

- o 2006년 경제성장률 5.0%(한국은행 잠정치) 중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3.6%p

## &lt;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&gt;



자료 : 한국은행, 한국무역협회

주 : 1)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률(경제성장 기여도, %p) = 
$$\frac{\Delta \text{수출에 의한 실질부가가치유발액}}{\text{전년도 실질 GDP}}$$

2)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(%) = 
$$\frac{\Delta \text{수출에 의한 실질부가가치유발액}}{\Delta \text{실질 GDP}}$$

▶ 보고서 원문은 국제무역연구원(<http://iit.kita.net/>)의 「2006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

□ 특히 최근의 어려운 고용사정에도 불구하고, 2006년 수출의 취업유발인원은 34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(2,315만명) 대비 14.7%의 비중을 차지

- 수출의 취업에 대한 기여율은 2003년 11.9%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해에는 14.7%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고용사정 완화에도 수출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

수출의 취업기여율(%) :  $\frac{2003\text{년}}{11.9} \rightarrow \frac{2005\text{년}}{14.2} \rightarrow \frac{2006\text{년}}{14.7}$

< 수출의 취업에 대한 기여 >

(천명, %)

| 구 분    |          | 2003년   | 2004년   | 2005년   | 2006년  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총수출액   | (a)      | 193,817 | 253,845 | 284,419 | 325,465 |
| 총취업자수  | (b)      | 22,139  | 22,557  | 22,856  | 23,151  |
| 취업유발인원 | (c)      | 2,626   | 3,228   | 3,242   | 3,403   |
| 취업기여율  | (c/b, %) | 11.9    | 14.3    | 14.2    | 14.7    |

자료 : 통계청, 한국무역협회

□ 최근의 대외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, 원-달러환율 하락,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 수출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

- 수출이 지속적인 한국경제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환율운용,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FTA와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, 차별화된 품질 및 브랜드 전략, 기업 규제 완화 등에 더욱 힘써야 함

## Focus 2

## 우리나라 대미 수출 중 기업내 수출 추이

미국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기업내 수출 비중은 2006년 46.8%로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, 특히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 대미수출 상위 10개국 중 기업내 수출 비중이 58.5%로 4위를 기록

- “기업내 무역(Intra-firm trade)”이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의 거래로, 특히 기업내 수출은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수출을 의미

## &lt;2006년 대미수출 상위 10개국의 기업내 수출 비중 추이&gt;

(단위: %)

| 비중<br>순위 | 수출액<br>순위 | 국 가       | 92          | 94          | 96          | 98          | 2000        | 2001        | 2002        | 2003        | 2004        | 2005        | 2006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        | 4         | 일본        | 75.0        | 75.5        | 72.7        | 73.7        | 74.3        | 73.5        | 76.6        | 79.1        | 78.9        | 78.6        | 78.8        |
| 2        | 5         | 독일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64.7        | 66.7        | 67.2        | 66.6        | 62.1        | 61.5        | 62.6        |
| 3        | 6         | 영국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48.8        | 48.6        | 53.3        | 58.2        | 58.5        | 58.4        | 59.5        |
| <b>4</b> | <b>7</b>  | <b>한국</b> | <b>26.8</b> | <b>37.5</b> | <b>44.0</b> | <b>44.9</b> | <b>55.4</b> | <b>55.1</b> | <b>56.1</b> | <b>58.5</b> | <b>62.3</b> | <b>57.7</b> | <b>58.5</b> |
| 5        | 3         | 멕시코       | 63.3        | 69.2        | 66.5        | 66.3        | 66.1        | 67.5        | 66.7        | 64.2        | 61.1        | 58.9        | 58.1        |
| 6        | 9         | 프랑스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41.0        | 39.8        | 42.6        | 47.1        | 48.9        | 48.7        | 48.7        |
| 7        | 10        | 베네수엘라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15.1        | 14.9        | 23.0        | 31.8        | 42.1        | 51.0        | 46.1        |
| 8        | 1         | 캐나다       | 46.0        | 44.6        | 44.8        | 44.1        | 44.0        | 41.5        | 42.4        | 43.3        | 45.5        | 44.4        | 46          |
| 9        | 8         | 대만        | 15.9        | 18.8        | 21.4        | 21.8        | 21.6        | 21.1        | 22.2        | 22.1        | 24.0        | 24.7        | 25.9        |
| 10       | 2         | 중국        | 10.5        | 13.3        | 15.2        | 17.7        | 18.1        | 18.1        | 20.5        | 23.0        | 27.1        | 25.8        | 24.6        |
| 전체 국가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45.0        | 46.4        | 46.5        | 46.9        | 46.7        | 46.5        | 47.6        | 47.5        | 47.8        | 46.7        | 46.8        |

자료 : US Census Bureau

우리나라의 기업내 수출 비중은 특히 빠르게 증가하여 1992년 26.8%에서 2006년 58.5%로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

- 우리나라보다 기업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일본, 독일, 영국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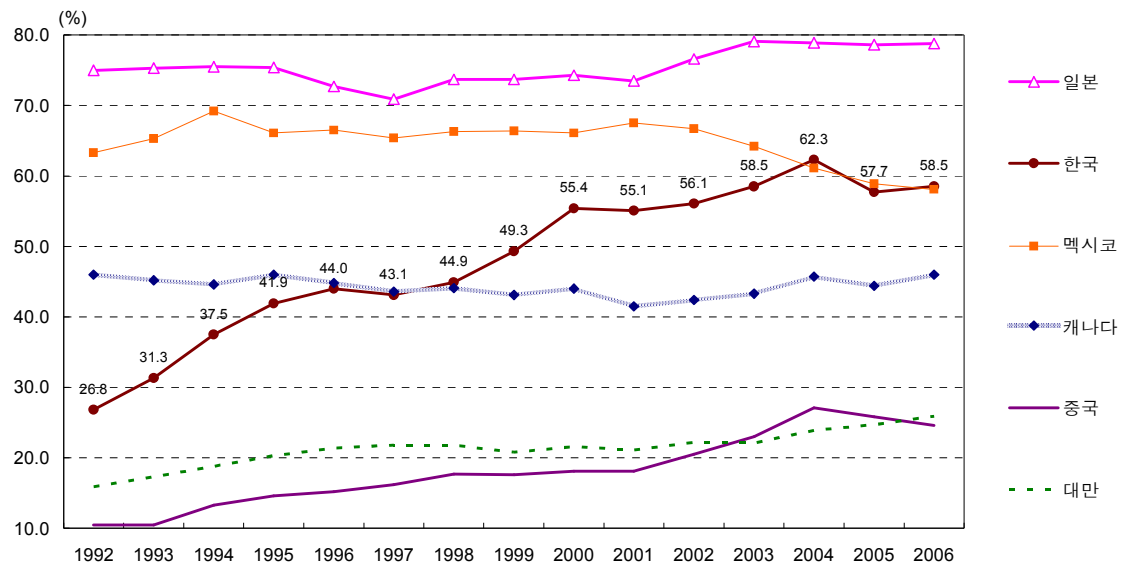
선진공업국이며,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절반에 못 미침.

## Trade Focus

## IIT, KITA

- 멕시코, 캐나다 등 인접 FTA국가(NAFTA)는 우리나라보다 대미 수출액은 크지만 기업내 수출 비중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

<대미 수출 주요국의 기업내 수출 비중 추이>



자료 : US Census Bureau

우리나라가 기업내 수출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이유는 주력 수출상품이 의류, 신발 등 경공업 제품에서 중화학 공업제품으로 크게 변화하면서 마케팅 등을 위한 현지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임.

- 2006년 우리나라 대미수출의 5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기계와 컴퓨터 및 전기제품의 기업내 수출 비중은 모두 70%를 상회하여 우리나라 대미수출 10대 품목 중 기업내 수출 비중 면에서 1, 2위를 차지
- 이는 상기 품목들이 선진국과의 경쟁이 특히 치열하여 마케팅, 물류비용 절감, R&D 등을 위한 현지 판매 및 생산법인 등의 설립이

불가피해졌기 때문

## Trade Focus

IIT, KITA

### <우리나라 대미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국가별 기업내 수출 비중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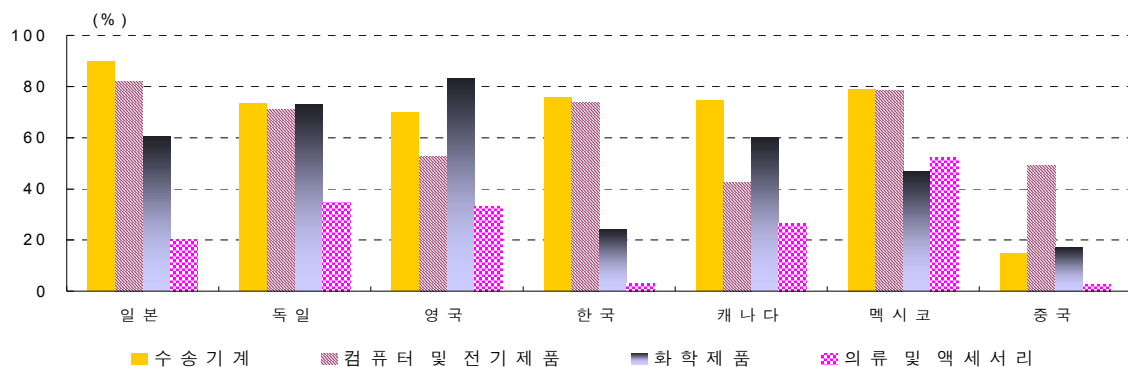
| No. | 품목         | 일본   | 독일   | 영국   | 한국   | 캐나다  | 멕시코  | 중국   |
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1   | 수송기계       | 89.7 | 73.5 | 70.0 | 75.7 | 74.5 | 79.1 | 14.7 |
| 2   | 컴퓨터 및 전기제품 | 81.9 | 71.3 | 52.6 | 73.9 | 42.5 | 78.6 | 48.9 |
| 3   | 1차 금속제품    | 60.3 | 55.4 | 45.1 | 53.1 | 37.5 | 54.5 | 12.8 |
| 4   | 플라스틱 및 고무  | 80.3 | 56.0 | 61.6 | 51.0 | 41.1 | 62.5 | 12.9 |
| 5   | 기계 (전기 제외) | 67.9 | 57.4 | 61.0 | 48.6 | 29.2 | 81.0 | 28.0 |
| 6   | 석유 및 석탄제품  | 63.8 | 39.9 | 64.8 | 39.9 | 69.8 | 15.5 | 44.8 |
| 7   | 전기설비 및 부품  | 78.5 | 58.8 | 49.2 | 46.5 | 39.4 | 80.2 | 16.5 |
| 8   | 화학제품       | 60.5 | 73.2 | 83.4 | 24.2 | 60.3 | 47.0 | 17.0 |
| 9   | 조립금속제품     | 77.5 | 53.5 | 42.9 | 16.5 | 24.6 | 63.3 | 12.0 |
| 10  | 의류 및 액세서리  | 20.2 | 34.8 | 33.3 | 3.1  | 26.3 | 52.5 | 2.7  |

주 : NAICS 3단위 기준 자료 : US Census Bureau

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와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구조를 감안하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업내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.

- 우리나라 10대 수출상품의 대미 기업내 수출 비중을 일본, 독일 등과 비하면 컴퓨터 및 전기제품과 수송기계를 제외하고는 전 품목에서 이들 양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

### <주요 품목의 각국의 기업내 수출 비중>



주 : NAICS 3단위 기준 자료 : US Census Bureau

▶ 문의 :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송송이 수석연구원 (☎ 6000-5179, songiee@kita.net)

## Focus 3

## 한-EFTA FTA 1년 - 자동차, 공작기계 수출 호조

한-EFTA FTA는 2005년 1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으며 2006년 9월에 발효

- EFTA측은 우리로부터의 모든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100%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으며 우리는 EFTA에 대해 상품의 86.3%를 즉시철폐(10년내 99.1% 관세철폐)

한-EFTA FTA 발효 후 11개월간 교역실적을 살펴보면 우리의 對 EFTA 수출은 발효 전에 비해 35.0% 감소한 반면, 수입은 53.7% 증가하였음

우리나라의 對EFTA 수출이 감소한 것은 발효 직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선박, 금, 그림 등 불규칙 요인이 작용한 품목의 수출이 발효이후 급감한 영향이 큼

- 협정발효 전에 선박은 대노르웨이 수출이, 금·그림은 대스위스 수출이 급증했던 것으로 이들 품목은 일시적인 해외수요에 따른 것임

\* 특히 선박의 경우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국제적으로 파나마, 라이베리아 등 국가로의 편의치적이 일반화된 상태로 국가별 교역 실적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음

실제로 선박(MTI 7461), 금(MTI 1111), 그림(MTI 921) 등 불규칙 요인이 큰 품목의 對EFTA 수출을 제외하면 수출은 발효전 대비 오히려 6.9% 증가함

## &lt;불규칙 요인 조정 후 對EFTA 수출입 추이&gt;

(단위: 백만달러, %)

|     |          |    | 발효전1년<br>(‘05.9-’06.8) |       | 발효후11개월<br>(‘06.9-’07.7) |        |
|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|          |    | 금액  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 |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  |
| 수출  | 조정 전     |    | 1,589                  | 46.8  | 969                      | -35.0  |
|     | 차감<br>품목 | 선박 | 551                    | 89.5  | 230                      | -55.5  |
|     |          | 금  | 256                    | 454/5 | 8                        | -100.0 |
|     |          | 그립 | 59                     | 532.7 | 22                       | -62.5  |
|     | 조정 후     |    | 723                    | -1.8  | 717                      | 6.9    |
| 수 입 |          |    | 1,974                  | 11.4  | 2,713                    | 53.7  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이들 불규칙한 요인 이외에도, 한-EFTA FTA 체결 영향으로 자동차, 공작기계 등의 수출은 호조를 보였으나, FTA 체결 이전에도 ITA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었던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유럽내 경쟁격화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했음

## &lt;협정 발효 전후한 주요 품목의 수출 추이&gt;

(단위: 백만달러, %)

| 품목명<br>(MTI)    | 관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허   | 2006.12<br>수출액 | 비중<br>(%) | 발효전1년<br>(‘05.9-’06.8) |       | 발효후11개월<br>(‘06.9-’07.7)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금액  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 |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  |
| 선박<br>(7461)    | (CH)7.20 Fr./<br>100Kg brut       | 즉시철폐 | 687            | 39.7      | 552                    | 35.0  | 231                      | -55.4  |
| 자동차<br>(741)    | (CH)14.00 Fr./<br>100Kg brut      | 즉시철폐 | 396            | 22.9      | 349                    | -31.2 | 354                      | 8.4    |
| 금<br>(1111)     | 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즉시철폐 | 224            | 12.9      | 256                    | 440.6 | 19                       | -100.0 |
| 무선통신기기<br>(812) | 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즉시철폐 | 75             | 4.4       | 91                     | -2.6  | 77                       | -8.3   |
| 그림<br>(921)     | 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즉시철폐 | 59             | 3.4       | 59                     | 532.7 | 22                       | -62.5  |
| 금속공작기계<br>(723) | (CH)4.80~15.00Fr.<br>/100 Kg brut | 즉시철폐 | 10             | 0.6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| 56.7  | 9                        | 47.1   |
| 공구<br>(752)     |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즉시철폐 | 10             | 0.6       | 9                      | 16.4  | 9                        | 11.9   |
| 對EFTA 총수출액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1,730          | 100.0     | 1,589                  | 46.8  | 969                      | -35.0 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, CH는 스위스 약어

對EFTA의 수입은 발효 이후 11개월간 53.7%나 증가하여, FTA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

- － 반도체 제조시 활용되는 고순도의 스위스산 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FTA 효과로 기존 수입처로부터의 수입이 스위스로 대거 전환된 영향임
- － 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 효과로 인해 의약품, 기계류, 선박용부품 등 전통적으로 EFTA 국가들의 경쟁력이 높았던 품목의 수입도 크게 증가

<협정 발효 전후한 주요 품목의 수입 추이>

(단위: 백만 달러,%)

| 품목명<br>(MTI)     | 관세율 | 양허            | 2006. 12<br>수입액 | 비중<br>(%) | 발효전 1년<br>(’05.9-’06.8) |       | 발효후 11개월<br>(’06.9-’07.7)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금액   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 |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   |
| 원동기및펌프<br>(711)  | 8 % | 즉시철폐<br>5년 철폐 | 243             | 11.1      | 221                     | 70.4  | 161                       | -18.1   |
| 의약품<br>(2262)    | 8 % | 7년 철폐         | 179             | 8.2       | 157                     | 28.2  | 179                       | 36.7    |
| 기타기계류<br>(790)   | 8 % | 5년 철폐         | 160             | 7.3       | 122                     | 144.3 | 197                       | 110.4   |
| 선박용부품<br>(7464)  | 8 % | 5년 철폐         | 125             | 5.7       | 115                     | 21.9  | 134                       | 31.1    |
| 계측제어분석기<br>(815) | 8 % | 즉시철폐          | 137             | 6.2       | 120                     | 17.8  | 141                       | 25.4    |
| 금<br>(1111)      | 3 % | 즉시철폐          | 35              | 1.6       | 19                      | -60.1 | 267                       | 1,688.6 |
| 對EFTA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2,195           | 100.0     | 1,974                   | 11.4  | 2,713                     | 53.7   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한편 우리측 수입민감성이 감안되었던 수산물의 경우, 양허 폭이 컸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세를 보임

- － 국내산 대체가 어려워 즉시철폐로 분류했던 냉장 및 훈제연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

▶ 문의 :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이중호 연구위원 (☎ 6000-5106, [ijcer@kita.net](mailto:ijcer@kita.net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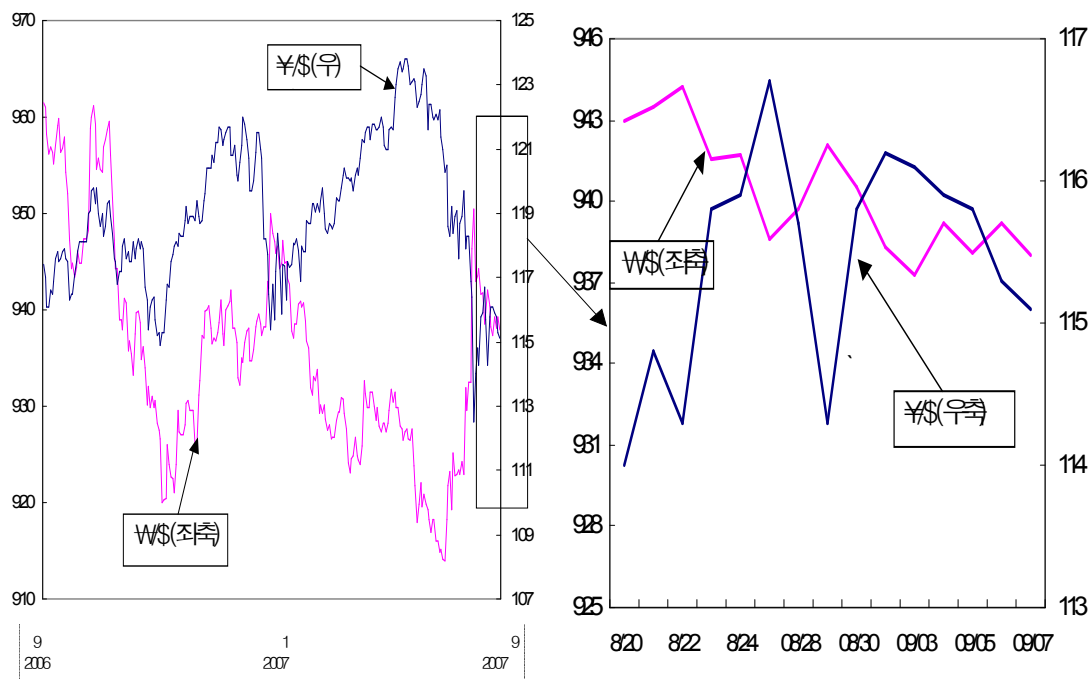
## Focus 4

## 원-달러환율, 이번 주 938.0원으로 마감

원화환율은 주초 937.3원으로 시작, 9월 7일 938.0원으로 마감

— 한편 엔-달러 환율은 9월 7일 115.1엔을 기록

## &lt;원-달러환율 및 엔-달러환율 장단기 추이&gt;



## &lt;주간 환율 동향&gt;

|        | 2006<br>년말 | 2006년중<br>최고치 | 전주말<br>(8.31) | 2007.9.3 ~ 9.7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주간변동율<br>(%)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9.3            | 9.4    | 9.5    | 9.6    | 9.7    |              |
| W/\$   | 929.6      | 1008.9        | 938.3         | 937.3          | 939.2  | 938.1  | 939.2  | 938.0  | 0.03         |
| W/100¥ | 781.8      | 867.7         | 807.7         | 807.3          | 810.5  | 810.6  | 814.6  | 814.9  | 0.89         |
| W/EUR  | 1222.2     | 1228.6        | 1282.3        | 1280.1         | 1277.4 | 1276.8 | 1279.8 | 1286.2 | 0.30         |
| ¥/\$   | 118.9      | 119.9         | 116.2         | 116.1          | 115.9  | 115.8  | 115.3  | 115.1  | -0.95        |
| EUR/\$ | 0.7606     | 0.8458        | 0.7330        | 0.7335         | 0.7343 | 0.7343 | 0.7326 | 0.7303 | -0.37        |
| 위안/\$  | 7.8135     | 8.0702        | 7.5450        | 7.5450         | 7.5449 | 7.5500 | 7.5512 | 7.5388 | -0.08        |

▶ 문의 :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홍승범 연구원 (☎6000-5176, [everhong78@kita.net](mailto:everhong78@kita.net))

## Briefs 1

## 친(親)이슬람 대통령과 터키경제

## 1. 히잡과 대선

- 정교분리를 국시로 삼고 있는 터키에서 친 이슬람성향의 압둘라 굴 전 외무장관이 지난 29일 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터키 경제의 미래가 주목받고 있음.
- ※ 터키는 국민의 97%이상이 이슬람교 신자들이지만 ‘건국의 아버지’인 케말 파샤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세웠음. 이에 따라 터키는 이슬람권에서는 최초로 1923년부터 공화국 체제를 만들었고 군부와 지식인들은 이 원칙에 충실하여 정치인들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지지
- 지난 4월 대통령 선출을 위한 의회표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렀던 터키는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야당의 반발로 3차까지 가는 혼란 끝에 집권 정의개발당(AKP)의 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
- ※ 터키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됨.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나 실권을 내각의 총리에게 있음.
- 이번 대선이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난 6월 굴 후보의 부인과 딸이 이슬람교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‘히잡’을 쓴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남으로서 굴 후보가 집권당과 함께 세속주의를 무시하고 이슬람교에 경도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국민적 저항이 높아졌기 때문임.
- ※ 집권당이 5월 의회해산에 이은 총선과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8월 대통령선출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 집권후 이룩한 경제적 성과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반서방 정서에 힘입어 국민들의 이슬람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서 출발
- 집권당은 당초 의도대로 의회의 과반수 확보와 소속당 출신의 대통령선출에 성공했으나 정교분리의 원칙을 중시하는 터키에서 친 이슬람 대통령의 탄생은 터키의 정국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.
- 굴 대통령은 당선 직후 “세속주의 원칙을 수호할 것”임을 선언하며 반대세력을 달래기에 나섰으나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행사에 일부군부가 불참하는 등 정국은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임.
- ※ 터키군부는 196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쿠데타를 일으킨 뒤 민간정부에 권력을 이양한 바 있고 1997년에는 압력행사로 첫 이슬람 정부를 와해시킨 바 있음.

## 2. 불안한 환율시장

- 두 차례의 경제위기(2000년 11월 및 2002년 2월)를 겪은 후 집권한 에르도간 정부는 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얻으면서 △재정 적자 삭감 △인플레이션 억제 △민영화 촉진 △금융기관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안정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.
- 대외적으로는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에르도간 정부는 2005년 10월이후 EU가입협상을 진행하면서 쿼터집행, 반덤핑 및 보조금 등 무역정책전반에 대해 EU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정책을 펼쳐 옴.
- 8월 초순 발생한 서브프라임문제와 국내정치의 불안요인으로 말미암아 터키의 新리라 환율이 불안정적인 모습을 보임.

### 《최근 터키의 대미환율동향》

(단위: TRY)

| 일자  | 8.9   | 8.16  | 8.23  | 8.24  | 8.27  | 8.28  | 8.29  | 8.31  | 9.3   | 9.4   | 9.5  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환율  | 1,267 | 1,383 | 1,314 | 1,324 | 1,308 | 1,318 | 1,324 | 1,291 | 1,294 | 1,301 | 1,296 |
| 증감률 | 0.9   | 3.9   | -1.7  | 0.7   | -1.2  | 0.7   | 0.4   | -2.5  | 0.2   | 0.5   | -0.4  |

주:매입환율기준이며 증감률은 전일대비임.

자료:터키중앙은행

- 터키의 환율은 8월 16일 전일대비 3.9%가 상승한 1.3826을 기록하여 불안정적인 모습이 고조되었으나 9월 5일 현재 1.2958을 기록함으로써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고 있음.
- 특히 굴 대통령의 선출과 취임, 군부와의 면담 등이 있는 27일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근 환율불안은 대통령선출을 둘러싼 정국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됨.
- ※ 터키주식시장(IMKB)의 종합지수는 8월 15일 4.3%, 16일 6.8%가 하락하여 43,474까지 떨어진 바 있으나 9월 3일 55,625의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4일에는 48,680을 기록, 국제시장의 유동성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임.

- 터키는 1980년 이후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60%이상이지만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농산품과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공산품이 전체수출의 85%에 달하고 있어 의존도는 높아가고 있음.
- 이스탄불상공회의소(ISO) 큐축소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터키경제가 국제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, 외환시장에서 터키リラ의 급속한 평가절하가 예상됨으로 새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

### 3. 기수를 EU로

- 에르도간 총리는 집권 후 지속적인 경제개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숙원인 EU가입 협상을 시작하는 등 터키의 대외적 위상을 높인 바 있어 정국불안의 타개책으로 EU 가입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예상됨.
- 4일 발표한 새 내각에는 굴 대통령의 후임 외무장관에 EU 가입협상의 주역이던 바바칸 경제장관을 임명함으로써 EU 중시정책기조를 분명히 함.
- 굴 대통령도 취임후 첫 해외방문지로 UN총회 참석을 대신하여 북사이프러스로 정함으로서 EU가입을 위해 EU측에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음.
- ※ 굴 대통령의 취임이후 9월 4일 터키의 EU가입에 호의적인 영국의 외무장관이 방문했으며 가입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도 가입협상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화답
- 한편 이슬람화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군부와 지식인들을 위해 집권당은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음.
-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터키가 유럽을 향할 것인지 이슬람국가로 남을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의회의 개헌통과선(제적의원 2/3이상)인 367석에 비해 집권당의 의석수는 337석에 그쳐 개헌을 둘러싼 양 세력의 힘겨루기로 인해 터키정국은 불안요인이 상존

## 4. 시사점

- 한-터 양국간 교역은 1990년 이후 연평균 15%가 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 후 2001년 주춤하다가 2002년 회복세로 돌아서 금년 7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.

## 《한국의 대 터키 수출입동향》

(단위:백만\$)

|        | 수출      | 증감률   | 수입    | 증감률   | 수지   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
| 2001   | 697.1   | -42.2 | 130.3 | 156.5 | 566.7   |
| 2002   | 865.9   | 24.2  | 125.3 | -3.8  | 740.6   |
| 2003   | 1,374.7 | 58.8  | 78.1  | -37.7 | 1,296.6 |
| 2004   | 2,356.2 | 71.4  | 104.0 | 33.2  | 2,252.2 |
| 2005   | 2,782.0 | 18.1  | 127.0 | 22.5  | 2,655.0 |
| 2006   | 3,036.0 | 9.1   | 194.0 | 57.8  | 2,842.0 |
| 2007.7 | 2,345.9 | 34.1  | 162.3 | 22.4  | 2,183.6 |

자료: KITA.net

- 최근 터키는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EU의 교두보 역할 등으로 인해 post-BRICs로 주목되면서 금년 7월까지 대터키 수출은 34.1%가 증가
-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터키는 모든 규범을 EU 기준과 조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,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도 제도적으로는 EU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비중임.

## 《대 터키 10대 수출상품 동향》

(단위:백만\$, %)

|         | 2007.7 |         | 2006  |       | 2005  |        | 2004  |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        | 수출액    | 증감률     | 수출액   | 증감률   | 수출액   | 증감률    | 수출액   | 증감률     |
| 자동차     | 339.7  | -11.6   | 700.0 | -5.9  | 744.2 | 15.6   | 643.7 | 154.8   |
| 무선통신기기  | 295.3  | 90.0    | 284.6 | 88.0  | 151.4 | -3.0   | 156.0 | 68.3    |
| 평판디스플레이 | 225.2  | 316.1   | 217.2 | 174.4 | 79.2  | 239.8  | 23.3  | 1,587.6 |
| 합성수지    | 177.7  | 60.5    | 187.8 | 49.3  | 125.8 | 33.5   | 94.2  | 50.2    |
| 건설광산기계  | 139.1  | -14.6   | 194.4 | 11.2  | 174.8 | 94.6   | 89.8  | 129.8   |
| 자동차부품   | 127.2  | 8.9     | 219.7 | 44.5  | 152.1 | 18.5   | 128.3 | 67.1    |
| 선박해양구조물 | 108.2  | 1,839.5 | 6.3   | -93.6 | 98.4  | -3.8   | 102.3 | 92.9    |
| 철강관     | 87.3   | 78.7    | 94.9  | 48.2  | 64.1  | 52.3   | 42.1  | -29.3   |
| 인조섬유 장사 | 59.9   | 22.2    | 95.1  | 4.8   | 90.7  | -5.9   | 96.5  | 13.3    |
| 형강      | 57.2   | 30,189  | 7.1   | 289.1 | 1.8   | 81,168 | 0.002 | -       |

자료:KITA.net

▶ 문의 :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전략실 김영우 연구위원 (☎ 6000-5178, soleil123@kita.net)

## News 1

**캐나다·멕시코·미국, DDA협상에 대한 책임 재확인**  
 (World Trade Net-Business Briefing, 8월 2호)

캐나다·멕시코·미국은 다자주의적 무역자유화 및 WTO DDA 협상 타결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

- 8월 14일 개최된 NAFTA 자유무역위원회(Free Trade Commission)의 장관급 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WTO 회원국들이 농업과 비농업 시장개방에 관한 의장초안에 기반을 둔 협상에서 새로운 의지를 갖고 보다 융통성 있게 임해야한다고 강조

## News 2

**EU-SADC EPA협상 순탄치 않아**  
 (Business Day, 8/30)

EU-SADC EPA의 12월 협상시한이 다가오고 남아공 등 SADC 회원국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, EU측은 불만표시

-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9년 EU와 FTA의 일종인 무역개발협력협정(Trade,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: TDCA)을 체결한 바 있으며, 올해 지역통합 차원에서 EU-SADC EPA 협상에 참여하게 됨
- EU-SADC EPA 협상에서 제시된 “신세대 사안(new generation issues)”인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, 지적권 등을 둘러싼 남아공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기존 EU-남아공 TDCA와의 절충문제가 동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음

\* SADC :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(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)의 약자. 1996년 12개국으로 출범하여 2004년 현재 남아공, 앙골라, 보츠와나, 나미비아, 리소토, 탄자니아, 모잠비크 등 14개국으로 구성됨

## News 3

**일본, FTA를 통해 생태다양성 추구**  
 (Against the grain, 8/27)

일본은 최근 FTA를 통해 종자 등 식량, 농업 및 의약품에 대한 지적권을 강화시킴으로써 생태다양성 추구

- 일본은 최근 칠레, 인도네시아 등이 기존에 수입해서 심던 종자를 수확한 후에 일부 종자를 남겨두고 다시 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자에 대한 지적권을 인정하는 UPOV에 가입토록 하는 합의문에 서명함

\* UPOV : 신종식물보호연합(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)의 약자.

## News 1

##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해 주는 리액터

브라질에서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해 주는 미래형 리액터 개발에 성공

- 브라질의 기술연구소(IPT; Institute of Technological Research)와 항공 기술 연구소(ITA; Technological Institute of Aeronautics)가 동 프로젝트에 참여
- 고온에서 전기 방전으로 가열된 플라즈마 가스를 터빈에 주입해 쓰레기를 분해하는 원리임
- 친환경 대체 에너지원 개발로 연소할 수 없는 쓰레기를 아스팔트로 전환해 도로포장에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문제 해결이 가능
-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쓰레기 매립지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용도에 쓰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
- 동 기술을 쓰레기 수집 및 재활용품 선별과 통합하면 이상적일 것임

출처 : Coolest-Gadgets ([www.kita.net](http://www.kita.net))

## News 2

## Jerry Lamp, 깨지지 않는 실리콘 램프

재활용 실리콘으로 만들어 부드럽고 유연해 깨지지 않는 Jerry Lamp 출시

- 제리 램프는 아침에 자명종 시계를 끄려다 침대 옆에 있는 램프를 깨뜨린 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됨
- 재활용 실리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밟아도 깨지지 않음
- 위쪽에 고리가 있어 테이블 가장자리에 걸어둘 수 있으며, 저자극성이므로 아이들 침실이나 놀이방에 적합
- 흰색과 녹색 두 가지 색상으로 디자인 위딘 리치(Design Within Reach)에서 135달러에 구입 가능

\* 본 자료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[www.kita.net](http://www.kita.net)의 「품목별 해외시장 동향」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출처 : Ohgizmo([www.kita.net](http://www.kita.net))

## 【주간 주요 경제지표】

### 1. 무역

(백만달러, %)

|             | 2006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007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8월               | 연간                | 8월               | 1-8월              |
| 수출<br>(増減率) | 27,287<br>(16.9) | 325,465<br>(14.4) | 31,225<br>(14.4) | 239,306<br>(14.8) |
| 수입<br>(増減率) | 27,029<br>(22.9) | 309,383<br>(18.4) | 29,687<br>(9.8)  | 228,836<br>(13.4) |
| 수출입차        | 258              | 16,082            | 1,538            | 10,470            |

### 2. 외환

|        | 2005년말  | 2006년말 | 9.3   | 9.4   | 9.5   | 9.6   | 9.7   | 週初比%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₩/US\$ | 1,013.0 | 929.6  | 937.3 | 939.2 | 938.1 | 939.2 | 938.0 | 0.1  |
| ₩/100¥ | 859.9   | 781.8  | 807.3 | 810.5 | 810.6 | 814.6 | 814.9 | 0.9  |
| ¥/US\$ | 117.8   | 118.9  | 116.1 | 115.9 | 115.8 | 115.3 | 115.1 | -0.9 |

### 3. 금융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5년말   | 2006년말   | 9.3      | 9.4      | 9.5      | 9.6      | 9.7      | 週初比%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회사채 <sup>1)</sup><br>수익율(3년)  | 5.52     | 5.29     | 5.87     | 5.86     | 5.85     | 5.85     | 5.80     | -    |
| 주가지수 <sup>2)</sup>            | 1,379.37 | 1,434.46 | 1,881.81 | 1,874.74 | 1,865.59 | 1,888.81 | 1,884.90 | 0.2  |
| 외국인 순<br>매수(억원) <sup>3)</sup> | 399      | △284     | △543     | △617     | △2,545   | △4,141   | 1,195    | -    |
| KOSDAQ <sup>2)</sup>          | 701.79   | 606.15   | 769.43   | 766.30   | 764.08   | 767.44   | 766.39   | -0.4 |

1) AA등급 무보증 사채의 단순 평균 수익률 2) 종가 기준 3) 연도말 및 월말은 누계치

### 4. 국제금융

|                   | 2005년말 | 2006년말 | 9.3    | 9.4    | 9.5    | 9.6    | 9.7 | 週初比%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|
| LIBOR<br>(3월, \$) | 4.54   | 5.36   | 5.67   | 5.70   | 5.72   | 5.72   | -   | 0.9  |
| 뉴욕주가지수(D/J)       | 10,718 | 12,463 | 13,358 | 13,449 | 13,305 | 13,363 | -   | 0.04 |
| NASDAQ            | 2,205  | 2,415  | 2,596  | 2,630  | 2,606  | 2,614  | -   | 0.7  |
| 동경주가지수            | 16,111 | 17,226 | 16,525 | 16,420 | 16,158 | 16,257 | -   | -1.6 |

### 5. 원자재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5년말 | 2006년말 | 9.3   | 9.4   | 9.5   | 9.6   | 9.7 | 週初比%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|
| 원유<br>Dubai(\$/bbl)                | 53.49  | 56.71  | 69.00 | 69.24 | 70.32 | 70.78 | -   | 2.6  |
| 256M 반도체<br>(US\$/개) <sup>1)</sup> | 3.26   | 2.89   | 2.34  | 2.34  | 2.34  | 2.34  | -   | 0.0  |

1) 아시아 현물시장가격 32×8 133MHz